## 민족문화연구 제89호 편집자의 말

『민족문화연구』 제89호에는 기획특집 논문 5편, 일반 논문 12편을 포함하여 총 17편의 논문과 해제 1편이 수록되었다. 일반 원고로 수록된 논문은 문학이 7편, 역사학이 3편, 국어학이 1편, 불교학 1편이다. 문학의 경우 고전 시가와 현대 소설에 집중되었고, 역사학에서는 전통시대, 근대사에 집중되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문학과 역사학에서 식민지 조선, 일제 강점기에 특별한 관심과 새로운 문제의식을 학문적으로 풀어낸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기획특집으로는 '동아시아 문헌 속의 개인과 개인'을 주제로 하였는데, 이번 기획특집 논문 7편에 대한 소개는 '특집의 말'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반 논문과 해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한상길은 "한국불교 기우제 연구"에서 한국불교에서의 기우제에 관한 역사적 전개과정과 맥락을 다루었다. 기우제가 가뭄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비정기적, 단발적으로 개설되었으며 불교만의 고유성이나 차별성을 드러내는 의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교의례로 정착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불교의 성행 시기에는 기우제가 중시되면서 다양한 명칭으로 사찰은 물론 궁궐에서도 개설되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오직 사찰에서만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서야 진행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종교의 본질과 기능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고 한국불교사의 한 전통으로만 남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불교의 다양성을 기우제를 통해 살핌으로써 불교가 국가와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단면을 설득력 있게 다루었다.

김성환의 "江都時期 고려 왕실의 假闕 조영과 延基業"에서는 무신집권기 이후 왕업을 늘이는 연기업을 통해 원종의 친초가 어떤 배경에서 실행되었는지를 다루었다. 무신 집권기 이후 연기업이 이루어진 과정과 맥락을 짚은 뒤 고종 3년 거란유종의 침략을 기점으로 연기업이 전환된 과정, 이를 통해 무신집정자 아래 왕실 유지를 위한 연기업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고종 19년 이후 강화 천도, 태조시어 봉안, 법화경 법석과 대일왕도량·대불정오성도량 개최 등 고종 연간에 이루어진 연기업이 가진 의미를 정치하게

분석하였다.

안순태는 “연행록 소재 動物戱 기사 연구”에서 사행원들에게 주요한 볼거리였던 동물희 기사를 체계화하고, 그 연행 양상을 분석한 뒤 동물희를 관람한 조선 사행원들의 인식을 밝히기 위해 조선후기 연행록에 실려 있는 동물희 기록의 특징을 개관하였다. 이어 동물희 가운데 빈번하게 확인되는 후희와 호희를 중심으로 그 연행 양상을 살피면서 당대 사행원들의 인식이 동물에 대한 연민과 주체성 상실에 대한 비판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지영의 “20세기 초 미주 한인 소설 〈부도〉에 대한 고찰”에서는 1세대 미주 한인 전낙청이 한글로 쓴 미발표 장편소설 〈부도〉를 대상으로 19세기 말 부도와 외대의 사랑, 혼인, 사별 후 삶의 여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작가가 독서경험과 고향에 대한 기억을 작품 속에 투영하였는지를 설명하면서 고된 이주 노동자의 욕망이 소설적 허구로 탄생하게 된 과정을 잘 부각하였다.

배정상은 “출판인 송완식 문학 연구”에서 남송 송완식이 척박했던 식민지 서적출판문화계에서 다양한 저술출판활동에 매진했던 작가로서의 삶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총 8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동시대 세계정세 속 영웅, 현실세태에 대한 재담집, 활동사진이라는 최신 미디어에 대한 고소설 형식의 번역, 삽화를 활용한 탐정소설 등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작가적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백과신사전〉 발간 등에 한정되어 논의되었던 송완식에 대해 문학가로서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어낸 의미 있는 연구이다.

김지영의 “미결정의 공포에서 숭고한 공포로—식민지 조선 공포 서사의 분화과정 연구—”에서는 쾌락적 공포에 대한 식민지 한국 대중문화의 탐색을 괴담과 괴기소설의 분화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한국적 근대성의 운동방식 속에 드러나는 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1920년대 매체에 실린 괴담과 괴기소설이 근대와 전근대에 대한 양가적 저항감을 노출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그로테스크 취향에 대한 문화의 요청을 상이하게 수용해가는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설명하기 어려운 초현실적 경험에 대한 거리화 욕망은 괴담을 과거의

이야기로 화석화하는 논리를 통해 현존의 안정감을 확보하려 했으며 근대적 삶의 주변부를 형성하는 민속의 일부로 정착해 갔다고 보았다. 또한 『조광』을 통해 괴담과 달리 괴기소설들이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으로 상정된 근대라는 절대적 총체성을 지향함으로써 숭고한 공포의 감각을 표현해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어내었다.

김현정은 "1930년대 전문박물관 등장과 일제의 식민정책 변화"에서 1931년 우가키총독의 부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전문박물관 설립 배경과 정책적, 경제적 논리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농림국의 농림박물관, 식산국의 광업박물관, 내무국의 산업박물관, 체신국의 체신박물관, 철도국의 철도박물관, 경무국의 경찰참고관을 통해 조선지배 정책의 홍보, 그에 따른 현안 해결의 수단임을 밝히고 전문박물관이 박물관의 다양화가 아니라 일제의 식민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새롭게 부각시켰다.

이명학의 "일제시기 주거생활개선운동의 추이와 조직화 양상"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주거생활개선운동이 지역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작은 시가지까지 확산되었고, 시기적으로 주거문제와 주택정책의 변화에 따라 증폭된 반발이 체제 내화되었으며 유형별로는 선전운동과 자조운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전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양적으로는 소수였고 한시적이었지만, 수평적 의사결정기구의 발족과 공론의 형성, 그리고 구속적 규약의 설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광범위하게 일어난 임차인의 저항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드러내고 통치의 유효성에 균열을 일으키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조명하였다.

고재봉의 "백석의 「리스페스」 번역과 번역의 윤리"에서는 백석이 키플링의 소설 원작을 입수하여 직접 번역한 뒤 1940년에 『만선일보』에 게재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원문이 가진 당대 맥락과 번역자로서의 의지와 윤리를 분석해 내었다. 즉 백석이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하되, 상당히 완미한 문장을 구사하려 노력한 점, 혈통과 위생 담론 등 영국인의 기만성과 차별적 관점을 가진 서사를 그대로 노출한 점 등은 당시 오족협화의 슬로건을 선전하던 『만선일보』의 논리에 이의제기를 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고순희는 “해방 공간에 대응한 가사문학—문학적 의미, 그리고 가사문학사적 의의—”에서 해방 공간에 대응하여 창작된 가사문학의 전개양상을 작품세계와 창작 주체에 따라 나누어 살피면서 소재지, 작가, 창작시기, 작품 내용 등을 충실하게 고증하면서 서술하였다. 아울러 해방 공간에서 향유된 가사가 당대 해방 공간을 증언하는 다큐멘터리로 기능하였으며, 해방 후에도 가사문학이 여전히 살아 있는 장르로 기능하였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가사문학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기존 가사문학사에 반론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논문의 의의가 크다.

김태우의 “신동엽 시의 애도 양상 연구”에서는 애도가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신동엽 시에서 당대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이면서 시세계를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음을 프로이트와 데리다의 애도 이론을 원용하여 신동엽 시의 애도 양상과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신동엽 시의 시적 태도와 원리에 대해 ‘애도’의 관점에서 새롭게 부각하였다는 점에서 일독할 만한 가치가 있다.

송인성은 “현대국어 호출어 ‘이+보-’류의 발달과 사용 양상의 변화”에서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호출어 ‘이+보-’류의 의미 기능, 사용 양상을 구어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선 축약형인 ‘이봐’, ‘이 봐요’의 형태가 주로 사용되고 변화형인 ‘이것/거 보-’도 호출어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각 요청, 제안, 질문, 명령, 진술, 걱정, 문제 제기, 경고 등의 여러 발화 목적 및 상황에서 쓰이는데, 근래로 올수록 문제 제기, 경고 등의 상황에서 사용이 증가하며, 요청이나 제안, 질문 등을 하는 상황에서의 사용은 1970년-1980년대를 기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실증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용 범위의 축소 원인을 ‘저기(요)’의 증가세와 연관지어 해석하여 호출과 관련한 구어 발화의 의미 기능과 발화 상황별 경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고 있다.

이번 호의 해외한국학자료 해제에서는 엄태웅이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된 『수저옥란빙(水渚玉鸞)』을 소개하였다. 『수저옥란빙』은 19세기 창작으로 추정되는 저자 미상의 고전소설로서, 8권 8책의 한글필사본 세책본이다. 진양

과 그의 처첩, 그리고 진양의 아들인 진숙문과 그의 처첩 간 갈등과 화해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며, 한편으로는 숙문의 출장입상과 부귀영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자료는 권지팔 마지막의 내용을 통해 연작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동양문고본 필사본의 이본이 연활자본 『옥란빙』의 저본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총 8권 완질이 남아 있어 여타 이본과 달리 서사적 내용도 온전히 보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민족문화연구』 제89호에는 문학과 역사학을 중심으로 학계의 중견 학자들의 글이 여러 편 실려 무게감을 더하였다. 한편으론 치밀하게 자료에 천착하고 전에 없던 인식을 앞세운 소장학자의 글도 게재되어 한국학 연구의 신구 세대가 함께하는 장이 되었다. 또한 기획특집으로 '동아시아 문헌 속의 개인과 개인'을 다루어 한국학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논문들도 고루 실렸다. 부디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널리 읽혀 새로운 쟁점을 형성하고 후속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민족문화연구』는 다양한 전공의 한국학 연구자에게 열려 있다. 선행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새로운 관점과 문제의식, 자료를 소개하는 참신하고 깊이 있는 논문들이 투고되기를 기대한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